

2. 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



경기도가 인구 블랙홀!

- 시도 간 순이동 인구를 보면, 대부분의 지역이 순유출(전입인구 < 전출인구)이 나타났고, 세종, 경기, 경남, 제주만 순유입(전입인구 > 전출인구)이 나타났다.
- 유출된 인구는 주로 경기로 모여드는 것으로 나타났다.(순유입 17만 6천명)
- 순유입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, 경남(1만 5천 명)이며, 순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서울(-4만 8천 명), 부산(-2만 7천 명), 경북(-2만 7천 명) 순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2020년 시도간 순 이동 인구 (전입인구 - 전출인구) (단위 : 천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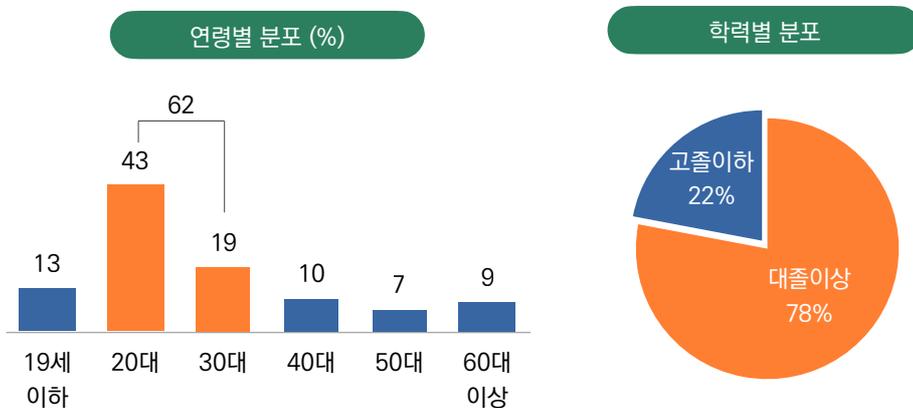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, 인구특성 항목' 2021.11.29. (2020년 11월 1일 0시 기준 전국의 20%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, 인터넷, 모바일,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함)

●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 중 20-30대 청년이 62% 차지!

- 작년 한 해 동안 서울/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총 97만 8천 명이었고, 유출된 인구는 86만 2천명으로 유입인구가 13% 더 많았다.
-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유입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, 20-30대 청년들이 62%나 차지하고 있었고, 대졸자 비중이 78%나 되었다.
- 지방의 대졸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서울/수도권에 대거 유입되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,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.

[그림]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연령별/학력별 분포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, 인구특성 항목' 2021.11.29. (2020년 11월 1일 0시 기준 전국의 20%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, 인터넷, 모바일,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함)